

물고기가 깨끗한 물 만든다는 사실 기억해야

그 강에는 물고기가 산다
 김익수 지음
 다른세상 펌
 1만7천원

“많은 기후학자들이 205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C 이상 올라갈 것이라 예측한다. 2°C의 차이는 전 지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될 것이며, 아마존을 비롯한 대부분의 열대림과 산호초가 파괴된다. 무엇보다 강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기온 상승의 결정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김익수 교수의 민물고기 이야기다. 저자는 17종의 신종 민물고기를 발표한 세계적인 어류학자로, 민물고기의 학명과 속명 중엔 그의 이름이 붙은 것이 있다.

“다양한 전설과 설화 속에서도 물고기들은 상서롭고 이로운 존재로 등장한다. 이 옛 이야기들에서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에서 목탁과 목어로 표현된 물고기는 늘 깨어 있으라는 각성의 의미를 가진다.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도록 했던 것이 바로 목어이다. 후에 목어는 목탁으로 바뀌면서 불교 중생에 대한 계도의 의미에서 모든 중생에 대한 계도의 의미로 그 뜻이 확대되었다.”

물고기는 어떤 동물일까. 물고기는 4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출현했다. 이때부터 물고기들은 민물, 바닷물 등 여러 환경에 적응해 살면서 지금과



불교에서 목탁과 목어로 표현된 물고기는 늘 깨어 있으라는 각성의 의미. 불영사 목어



화사한 줄무늬가 인상적인 쉬리



큰 가시고기 수컷이 혼인색을 띠면 붉은 색이 나타난다.

2050년 강에서 물고기 사라질지도
물고기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자원
깨끗한 물 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강 개발보다 강 속 물고기 살피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책은 고사와 문헌을 통해 물고기에 얽힌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서 물고기가 인간과 어떤 관계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의 강에는 물고기가 없다. 아이들은 물고기라는 생물을 오직 책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며, 강과 바다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물이 될 것이다.” 물고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자연환경을 만들어 온 국보급 문화유산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책은 “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물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조금 먼 이야기로만 느낀다.”

물과 물고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 생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물의 중요성만큼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깨끗한 물을 지키자는 구호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물속 생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책을 통해 물속의 물고기와 같은 여러 생물들이 물을 살리고 자연과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감돌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치열한 눈치싸움을 펼친다. 꺾지가 산란장을 만들면 감돌고기들은 꺾지 물레 그곳에 알을 낳는다. 책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의 이야기들과 사라져가는 우리 물고기들의 이야기, 물고기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총 일곱 개의 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은빛으로 춤추는 쉬리’, ‘수박향이 나는 은빛 은어’, ‘춤의 명수 큰가시고기’ 등 총 105종의 물고기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며, 이상 기술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강을 살리는 길은 보기 좋게 강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물속 생물들의 서식처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인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불심으로 이겨내는 산골의 병영생활

병사와 풍경소리

병사와풍경소리 | 보경 함헌준 | 운주사 | 1만원



연예병사 신분으로 국내 탑 탤런트인 김태희 씨와의 연애로 화제가 오른 탭스타 비. 복부규정 위반 등 규정 위반과 별개로 그에 대한 성도가 빛받지는 것은 수많은 이들이 군대에서 힘든 생활을 겪어야 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군대 안갈 방법은 없었을까? 누구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요령껏 생활하다 시간만 때우자...”

똑같은 군 생활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도 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BBS불교방송 ‘장병의 시간 - 아름다운 병영이야기’에 소개된 사연들은 이런 장병들과 예비 장병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

“살벌하고 굳기 엄한 최전방이지만 그 곳에도 따스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 친구에 대한 걱정도 있고, 병석에 누워계신 고향의 아버지 이야기에, 전역 후 진로고민까지 그들의 고민을 듣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아쉽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직 군중참모로 장병들과 함께 생활해 온 저자는 그들과 함께하며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나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군복무는 고통과 번민이 시간이라 아니라 정신적 성숙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기회입니다.”

저자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군 생활과 그 속에서 그들이 겪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며 기쁨과 보람을 얻고 주체적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았다. 현역 장병들이 힘든 생활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전한다.

저자의 이야기는 병사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춘천 마라톤에서 아들의 전투모를 쓰고 풀코스를 완주한 어머니의 이야기, 군대 내 강남스타일 열기 등 가볍게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 등을 함께 전한다.

동국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한 이후 1994년 군법사로 군문에 들어와 백두산부대, 열쇠부대,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저자. 현재 3군단 군중참모와 호국 병참사 주지법사를 맡으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낀 군 포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이 책은 현재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노력한 저자



저자 · 함헌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한지공헌차
2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샘애플커스
6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익수	공경원
8	기도	법륜	정토출판
9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10	치유하는 불교요기	서광	불광출판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시간

나에 대하여

김익수 지음 | 자유정신사 펌 | 1만2천5백원



하러 했으며, 제시하는 80가지의 삶의 새로운 시각과 예지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키고자한 철학적 시도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저자의 새로운 시선이 눈에 뜨인다. 자유 정신, 고귀함, 제3의 탄생, 존재의 투명성을 주제로 80가지의 삶의 예지를 제시하며, 잃어버린 나를 찾는 비밀의 문으로 안내한다.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고독감을 느낄

때, 상쾌한 소나무 향 실린 가을바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우선 ‘나’를 잃어버림에서 시작된다. 사를 동안의 여정에서 변화된 저자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있다.

“불개빛남은 조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모든 것이 극대화되어버렸다. 우리, 인간적인 사유의 본질은 희극이나 비극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극을보는 것과도 같이 우리 삶을 먼 시점에서 한번 보자. 우리들의 삶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우리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 꾸며지고 불평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저자는 불개빛남이라는 예지자와 사람들간의 대화를 제3자의 입장에서 기술해 나간다. 독자 자신이 관찰자가 되어 삶과 존재에 대해 조망하게 한다.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를 찾아가기 위한 대화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작은 대화의 분절마다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들이고, 다시 이어지는 대화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물음표 없는 물음과 마침표 없는 대답들 사이에서 철학과 만나게 된다.

“삶이 극화되면, 자신을 적절하게 치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도 그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칭찬하고 뒤따를 것이라는 비극적 확신이다. 친구들이여! 극장 속 관중에 둘러싸인 연극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를.”

결국 저자는 불개빛남에게 자신의 삶과 그 목표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정확히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혼돈의 원인에 대해 묻는다.

“내일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나’는 어디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책 속에 있는가. 그는 이 책 속 어디에 갇혀 두었는가. 오늘밤, 잠자리에서 오늘 이야기 한 자유 정신, 고귀함, 탄생, 투명함을 생각하며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가지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슬모가 될 것인가. 문뜰모로 들어오는 산바람에 섞인 소나무 향에 취해 잠 속으로 빠져든다. 내일은 나를 찾을 것이다.”

박재원 기자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여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해설서가 우여곡절 끝에 소생되어 1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 이 책의 4대 특징 ▼

(1) 초등학교도 읽을 수 있습니다.
 홍익초등학교 6학년 김모란

‘금강경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설법(說法)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전에는 머리가 아프다며 설설 피해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음을 밝혀주는 주옥같은 108가지 이야기로 엮어진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란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금강경과 그 외의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2)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우안동 서원행 보살

절에 다닌 저는 30년이 넘었지만 기록으로 민다보니,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실패, 엄마의 고관절 수술과 위암판정, 아들의 병입원, 본인의 디스크와 심한 위궤양, 남편의 교통사고 등 끝없는 재앙에 오로지 죽고만 싶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렵다는 금강경이 읽혀졌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읽다보니 한 달만에 만성피부염이 나았고, 1년 만에 재앙이 본래 없음을 깨달아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3) 깨달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기림사 중무사 법희보살

7년간 이 책을 100회 가까이 읽다보니, 매번마다 영적인 성장이 느껴져 너무나 놀라울 뿐이었다.

라즈니쉬 성자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진리들이 모두 이 책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보니, 온 몸에서 전율이 올 때가 많았다.

도반이었던 비구스님의 출가동기도 바로 이 책이었다.

(4) 진리탐구도 가능합니다.
 한양대 응용수학과 명예교수 임종욱

이 책이 제시하는 명쾌한 금강경 해설은, 이제까지의 파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하게 받아들인 금강경 이해를 말끔히 씻어주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어느 듯 금강경 독송이 즐거워지면서 수많은 잡념들이 훌훌히 사라짐과 동시에, 생각의 세계를 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감득(感得)하면서, 원인으로 기쁨이 내면 깊숙이에서 분출되는 신선하고 색다른 체험으로 진리탐구를 하게 된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중동 38-4 | 전화 : 070-7720-6832